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미 현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치료적 음악극이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김혜영

치료적 음악극이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배 미 현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김혜영

인 준 서

김혜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치료적 음악극이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I시 소재 H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 아동이며 실험집단 5명, 통제집단 5명으로 총 10명을 무선 배치하였다. 치료적 음악극은 2019년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험집단에 매회당 45분, 주 2회, 총 15회기로 진행되었다.

치료적 음악극을 시행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자기표현 척도와 사회기술 척도를 사용하여 사전검사를 시행하였고, 음악치료가 종료된 후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사후검사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으로 Mann-Whitney U 검정과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통해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음악극 프로그램 과정에서 나타난 실험집단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대상자들의 언어보고와 행동 반응을 질적으로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 치료적 음악극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표현과 사회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s < .05$). 자기표현의 하위영역인 내용적 요소, 음성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내용적 요소, 음성적 요소에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점수 향상을 보였다($ps < .05$). 반면 비언어적 요소에서는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사회성의 하위영역인 협동, 자기주장, 자기조절에서는 세 가지 요소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s < .05$). 치료적 음악극 프로그램 과정에서 나타난 연구 대상자들의 언어와 행동 반응에 대해 질적 분석한 결과, 대상자들의 자기표현 행동 및 사회성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적 음악극을 시행하여 치료적 음악극이 이들의 자기표현과 사회성에 양적·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이는 치료적 음악극이 다문화 아동에게 그룹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또래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적절히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치료 증재로서 기능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치료적 음악극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과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효과적인 증재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문제	4
II. 이론적 배경	5
1. 다문화 아동의 이해	5
1) 다문화 아동의 특성	5
2)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	6
3) 다문화 아동의 사회성	7
2. 다문화 아동을 위한 교육 및 치료	9
1) 다문화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9
2) 다문화 아동을 위한 교육 및 치료	9
3. 다문화 아동과 음악치료	11
1) 다문화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11
2) 치료적 음악극	12
III. 연구 방법	15
1. 연구 대상	15
2. 연구 설계	17

1) 연구 기간과 장소	17
2) 연구 설계	18
3. 측정 도구	19
1) 자기표현 척도	19
2) 사회기술 척도	20
3) 연구 대상자 행동 질적 분석	21
4. 연구절차	22
1) 파일럿 세션	22
2) 연구 참여 동의 및 기초정보조사	22
3) 사전검사	23
4) 음악치료 증재	23
5) 사후검사	23
5. 음악치료 프로그램	23
6. 자료 분석	30
IV. 연구 결과	31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1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32
3.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에 대한 치료적 음악극의 효과	33
1) 자기표현에 대한 효과	33
2) 자기표현의 하위영역에 대한 효과	35
4. 다문화 아동의 사회기술에 대한 치료적 음악극의 효과	38
1) 사회기술에 대한 효과	38
2) 사회기술의 하위영역에 대한 효과	40
5.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과 사회성 행동의 질적 분석	43

1) 연구 대상자 A의 자기표현, 사회성 행동 변화	44
2) 연구 대상자 B의 자기표현, 사회성 행동 변화	45
3) 연구 대상자 C의 자기표현, 사회성 행동 변화	47
4) 연구 대상자 D의 자기표현, 사회성 행동 변화	49
5) 연구 대상자 E의 자기표현, 사회성 행동 변화	50
V. 결론	53
1. 결론 및 논의	53
2. 제언	56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III-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16
<표 III-2> 연구 대상자의 특성	16
<표 III-3> 사전-사후 검사 통제집단 설계	18
<표 III-4> 자기표현 척도의 하위영역과 문항 구성	19
<표 III-5> 사회기술 척도의 하위영역과 문항 구성	20
<표 III-6> 자기표현과 사회성 행동관찰 항목	21
<표 III-7> 음악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	24
<표 III-8> 회기별 활동 목표 및 활동내용	25
<표 IV-1>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	31
<표 IV-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분석	33
<표 IV-3> 자기표현 변화량에 대한 Mann-Whitney <i>U</i> 검정	34
<표 IV-4> 자기표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34
<표 IV-5> 하위영역의 변화량에 대한 Mann-Whitney <i>U</i> 검정	36
<표 IV-6> 자기표현 하위영역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36
<표 IV-7> 사회기술 변화량에 대한 Mann-Whitney <i>U</i> 검정	39
<표 IV-8> 사회기술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39
<표 IV-9> 하위영역의 변화량에 대한 Mann-Whitney <i>U</i> 검정	41
<표 IV-10> 사회기술 하위영역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41
<표 IV-11> 연구 대상자 A의 언어보고와 행동 예시	45
<표 IV-12> 연구 대상자 B의 언어보고와 행동 예시	46
<표 IV-13> 연구 대상자 C의 언어보고와 행동 예시	48
<표 IV-14> 연구 대상자 D의 언어보고와 행동 예시	49

<표 IV-15> 연구 대상자 E의 언어보고와 행동 예시 51

그 립 목 차

<그림 IV-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표현 평균점수 변화	34
<그림 IV-2> 내용적 요소	37
<그림 IV-3> 음성적 요소	37
<그림 IV-4> 비언어적 요소	37
<그림 IV-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회기술 평균점수 변화	39
<그림 IV-6> 협동	42
<그림 IV-7> 자기주장	42
<그림 IV-8> 자기조절	42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한국사회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통계청(2019)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는 2015년에 약 136만 명, 2018년에 약 165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와 비례하여 국제결혼도 2017년 20,835명에서 2019년 23,643건으로 증가하며 다문화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출생아 역시 또한 증가하였다. 2018년 다문화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5.5%를 차지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0.4% 높아진 수치이다(통계청, 2019).

다문화가정 아동의 원활한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여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현경자, 2014). 그러나 제공된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은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한국어 교육, 언어발달 지원 등 언어발달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남부현, 김연이, 2011; 조현상, 2010). 때문에, 다문화 아동은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겪는 외적 어려움과 무기력, 우울, 스트레스 등 개인 내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우희숙, 2010).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아동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여성가족부, 2019). 첫째, 다문화 아동들은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다문화 아동은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서로 다른 생활 태도와 가치관, 문화를 접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선남이, 2013; 최연, 권호순, 2014). 이러한 정체성 혼란은 다문화 아동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중문화에 대한 부적응을 가중시킨다(박선희, 2010). 둘째, 다문화 아동은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다문화 아동은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부모로 인해 언어발달에 적절한 자극을 받는 것에 한계가 있다(김숙정, 2011). 김유리와 이현정(2016)은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이 또래 아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하였다. 언어능력이 부족한 다문화 아동은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를 어려워하여 타인과 대화하기를 회피하거나 주로 듣는 입장을 취할 때가 많다(김미선, 2009). 언어적 어려움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또래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다문화 아동의 낮은 자존감과 사회성 문제까지 전이될 수 있다(권희진, 2012). 셋째, 다문화 아동은 외형적 특징으로 인해 차별과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다문화 아동은 외모 차이로 인한 편견, 차별, 따돌림으로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겪어 학교에 부적응하기도 한다(이진희, 2016). 이러한 경험들이 지속될 경우 다문화 아동은 낮은 자아존중감, 심리적 위축감 등을 경험하기 쉽다. 이는 결국 다문화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학업 포기, 가출, 폭력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교육부, 2006).

다문화 아동의 정서적 어려움이 보고됨에 따라 다문화 아동을 위한 다양한 심리치료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홍은진과 이근매(2014)는 미술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김인숙과 이경희(2011)는 무용/동작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부정적 정서 감소와 학교생활 적응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중재임을 입증하였다. 김의연, 김미순, 황해영(2015)은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와 같은 표현예술 심리치료가 정서 및 행동 문제를 보이는 다문화 아동에게 효과적인 접근법이라고 제시하였다.

특히 음악치료는 언어 표현에 취약한 다문화 아동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고 흥미와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음악치료는 언어로 자신을 직접 표현해야 하는 심리상담치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재 방법이다(강경선, 2012; 이혜주, 2006). 음악치료에서 음악은 단순히 즐거움과 감동을 주기 위한 오락적 수단이 아니라 치료적인 도구로써 간접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강문주, 2013).

음악치료 중재 방법 중 치료적 음악극은 자기표현과 사회성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음악극은 치료적 목적을 담은 이야기 중심으로 노래 만들기, 신체표현, 악기연주 등을 결합하여 다양한 임상적 역할을 실행하는 것이다(정현주, 김동민, 2005). 또래와 함께 음악극을 창작하는 경험은 또래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표현 및 수용을 가능하게 한다(손성민, 2010). 음악극을 중재로 한 선행연구에서 윤희정(2005)은 음악극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유대감과 소속감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김주애(2014)는 음악극 창작 프로그램이 시설보호 아동의 교우관계와 자기표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였다. 김지은(2016)은 창작 음악극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기조절과 자기표현이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배성진(2018)은 음악극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성과 자기표현,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치료적 음악극은 아동의 자기표현과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중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선행연구들의 연구 대상은 모두 일반아동으로,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 진행된 음악치료에 사용된 음악극 또한 연구자가 창작한 음악극 또는 기존의 창작 음악극을 활용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김주애, 2014; 유명선, 2012; 임미영, 2015; 주효주, 2012; 한송이, 2016).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들이 직접 음

악극의 가사와 멜로디를 창작하고, 음악극에 사용되는 악기의 배치 또한 직접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극을 활용한 음악치료를 수행하고 사전·사후 비교를 통하여 자기표현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치료적 음악극이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치료적 음악극이 시행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자기표현 검사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2. 치료적 음악극이 시행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회성 검사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3. 치료적 음악극이 치료 상황에서 나타난 연구 대상자의 자기표현 행동과 사회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아동의 이해

1) 다문화 아동의 특성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및 한국인과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다(교육부, 2018). 과거에는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다문화가정이라 보았으나 현재는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국적 취득자, 새터민 등도 다문화가정으로 포함한다(김경은, 2013; 여성가족부, 2019). 최근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이주여성 등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국제결혼이 빈번해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9). 다문화 아동은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만 7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아동기 자녀를 지칭한다(김영애, 2017).

일반적으로 만 7세에서 12세의 아동은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경험을 한다(남정희, 2008). 그러나 다문화 아동은 학교에 입학하면서 일반아동과 다른 언어, 문화, 외모 등에서 비롯된 놀림과 차별을 경험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보이기 쉽다(김경은, 2013; 박선희, 2011; 박순희, 2009; 이영주, 2007; 최민영, 2015). 김수인(2010)은 다문화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따돌림을 겪은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은 우울과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높게 나타나 자아발달에 어려움을 겪는다(최경숙, 송하나, 2013; Berry, 1997). 다문화 아동이 경험하는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심화 될 경우, 다문화 아동의 사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인 기피 또는 학교 중퇴와 같은 문제들로 연결될 수 있다(교육부, 2006; 이선희, 2010).

오인수(2014)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를 조사한 결과 다문화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심리적 문제에 취약함을 확인하였으며, 또래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초등학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문화 아동의 심리적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아동의 다문화라는 특수한 요인으로 경험하는 갈등과 어려움이 불안과 위축 같은 심리적 어려움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2)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

Albert와 Emmons(1978)는 자기표현을 ‘자신의 권리’라고 말하며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Rakos와 Schroeder(1979)는 자기표현을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내용적 요소이다. 두 번째, 타인에게 말하는 사람의 말투, 억양, 목소리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음성적 요소이다. 세 번째, 상대방에게 명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표정과 손, 발을 포함한 신체 움직임 등의 비언어적 요소이다. 즉, 자기표현이란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 감정 등을 인식하고 이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타인에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다문화 아동은 ‘다문화’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기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다. 다문화 아동은 일반아동과 다른 외모와 미흡한 언어능력으로 인해 소극적인 대인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생각, 느낌, 감정 표현을 주저하고 타인과 대화를 두려워하여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김숙정, 2011). 황미경(2010)은 다문화 아동들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표현하는 것에 많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자기표현이 결여된 다문화 아동은 공격성이나 침묵 같은 왜곡된 태도로 자신을 표출하기도 한다(서정희, 2009; 제갈민정, 2019). 서현과 이승은(2007)은 다문화 아동이 관계 안에서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 결과,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또래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사회성 및 성격발달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박선희(2011)는 다문화 아동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자기표현의 문제와 사회 및 학교에서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자기표현을 잘하는 아동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타인과 원활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또래들에게 수용적 태도를 보인다(김소연, 강문희, 2005). 아동의 적절한 자기표현은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 앞으로의 과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다(호결, 2010).

3) 다문화 아동의 사회성

Gresham과 Elliott(1990)은 사회성을 협동, 자기주장, 자기조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협동은 가정과 학교 안에서 타인을 돕고 집단생활에 참여하여 함께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질이다. 자기주장은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이며, 자기통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간의 충동적 욕구나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사회성은

또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이며, 이러한 기술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신수경, 채영란, 2010).

학령기 아동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 중심의 관계를 벗어나 선생님, 친구, 이웃 등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경험을 한다(이수진, 2012). 사회성이 높은 아동은 또래 집단 안에서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며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김연진, 2015). 또래 관계를 원만히 하는 아동은 집단 안에서 필요한 협동심, 도덕적 개념, 타인에 대한 존중심 등을 학습하여 더욱 넓은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자질을 키워나간다(이수진, 2012). 반면 사회성이 부족한 아동은 그룹 안에서 규칙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갈등상황에서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이고 충동적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아동은 또래로부터 고립되거나 거부당하는 악순환을 경험하며(박민주, 방희정, 2007), 학년이 올라갈수록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연, 2009).

다문화 아동은 일반아동과 차별되는 외모와 피부색 그리고 미숙한 언어 표현으로 친구를 사귀거나 교사와 관계를 맺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어 또래 안에서 소외되는 경험을 한다(설동훈, 2005; 오성배, 2005; 이진희, 2016). 홍영숙(2007)은 다문화 아동의 소외감, 불안감, 정체성 혼란 등의 심리적 문제는 또래 관계 안에서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과 소통의 단절 또는 개인주의로 이어져 사회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다문화 아동이 학교와 또래 관계 안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2. 다문화 아동을 위한 교육 및 치료

1) 다문화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정부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2008년부터 다문화 관련 지원정책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시행하였다(안병희, 2016).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을 위한 교육과 생활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교과 학습지도를 지원한다(임준애, 2011). 여성가족부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여 부모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다문화가정 등의 아동에게 돌봄 및 학습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강병순, 김성경, 박영숙, 이경림, 정익중, 2010).

중앙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시·도 교육청에서도 다문화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활동들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문화 교육 증진을 위해 다문화 교육 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육직무 연수를 시행하고, 운동에 특기가 있는 다문화 아동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한다(강문희, 2013). 경기도는 다문화 아동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학습과 진로지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임준애, 2011). 부산시에서는 이중언어가 가능한 강사를 배치하여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다문화 아동이 각각의 문화적 배경과 이중언어를 활용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지세진, 2016).

2) 다문화 아동을 위한 교육 및 치료

다문화 아동은 언어발달지체로 인해 수업의 이해도가 낮아 활동에 집중하

지 못하고 관계 안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등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인다(교육부, 2006).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가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의무가 있다(서종남, 2008). 다문화 아동은 교사의 태도와 편견, 고정관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다문화 교육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다문화 아동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정원, 2017).

강혜진(2011)은 다문화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수교육은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하게 계획하고 실행되는 교육이다(양춘미, 2014). 다문화 아동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형은 2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발달 초기에 신체·언어·정신 지체로 인한 장애 위험이나 장애에 처한 경우이다. 둘째, 다문화라는 특수한 환경과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교육적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이다(강혜진, 2011; 양춘미, 2014). 이에 따라 다문화 아동의 학습 및 사회성 증진을 돕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충족하는 특수교육의 지원은 중요하다(신정원, 2017).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심리치료는 다문화 아동의 긍정적인 정서와 사회성 향상에 효과적이다. 이선미와 이선화(2009)는 교우관계를 위한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아동이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또래 관계 향상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고 밝혔다. 박현미와 손명희(2012)는 다문화 아동이 동화를 활용한 미술치료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법을 배워 자아개념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장연주(2015)는 또래 관계 개선을 위한 연극 활동에서 인물에 감정이입을 하고 동일시하는 경험을 통해 다문화 아동의 또래 간에 필요한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밝혔다.

3. 다문화 아동과 음악치료

1) 다문화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국내의 음악치료 분야에서는 다문화와 관련한 다문화 음악치료 (Multicultural music therapy)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인 미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돕기 위한 음악치료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Kennedy와 Scott(2005)은 노래 부르기, 음악 감상, 재창조 등을 포함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 청소년의 어학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Choi(2010)는 가족의 해체와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로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 등의 부정적 감정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치료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대상자의 부정적 감정이 해소되고 사회적응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Jespersen과 Vuust(2012)는 이완 음악감상이 정신적 충격으로 불안을 경험하는 새터민의 수면의 질을 높이고 불안을 감소시켰음을 입증하였다.

국내에서는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연구들이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다(김경언, 2013; 손솔이, 2017; 이경미, 정규진, 최애나, 2011; 조은지, 2017; 최애나, 2012). 권윤주(2010)는 집단음악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조절력과 사회성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김은선(2011)은 노래 가창과 악기연주가 다문화 아동의 언어적·감정적 자기표현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증명하였다. 황혜진(2014)은 다문화 아동을 위한 전래동요 중심의 음악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자아 정체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윤선영과 강경선(2016)은 노래심리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였다. 오선화, 황은영, 전유미(2016)는 악기와 노래, 동작 등의 다양한 음악 활동이 다문화 아

동의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우울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앞선 연구들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음악치료는 가창을 통해 아동의 목소리 사용을 촉진하여 자신감이 부족하고 위축된 아동의 감정을 표현하게 한다(정현주, 2001). 또한, 음악치료는 악기를 사용하여 음악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표출하여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한다(홍민주, 순진이, 2017; Burns, 2001; Radocy & Boyle, 1997).

욕구와 감정 해소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아동에게 음악치료는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감정을 해소하도록 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음악치료 경험은 다문화 아동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2) 치료적 음악극

치료적 음악극이란 음악과 이야기 두 요소의 치료적 특성을 결합하여 심리 치료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음악치료 활동을 의미한다. 정현주와 김동민(2005)은 음악극이 가지는 치료적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자기 자신과 타인, 외부 세계의 만남이다. 아동은 이야기의 주인공과 동일시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기억들을 역할에 투영시켜 현재 느껴지는 생각과 감정을 음악으로 자유롭게 고백하며 아동 내면에 숨겨져 있던 감정을 만난다. 둘째, 음악극은 아동의 표현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참여 아동은 음악극에 몰입하면서 등장 인물에게 투사했던 감정들을 템포, 화성, 선율 등의 음악적 요소로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악극은 아동이 창작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강도, 난이도, 참여도 등을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자 하는 동기와 경험을 제공한다. 즉, 음악극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삶의 재경험, 대리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게 하고, 협동과정을 경험하여 관계기술의 습득과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이인원, 최기영, 2006; 허혜진, 2010).

선행연구에 따르면, 음악극은 음악을 통해 표현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악기연주를 통해 공격성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표출하고 조절하여 대인관계와 사회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음악극을 만드는 과정은 성공적인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며 집단의 응집력을 높이고 완성된 곡을 통해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최은실과 윤선희(2009)는 음악극에서 신체표현과 즉흥 악기연주와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방법으로 자기표현을 연습하고, 타인과 교류하며 사회적 기술을 익히는 것은 유아의 긍정적 자아개념 향상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허혜진(2010)은 음악극 창작과정에서 타인과 협동하며 공감하고 수용하는 경험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기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김숙정(2011)은 음악극에서 자신의 생각이 음악으로 재탄생되는 성공적인 경험이 아동의 자기표현 향상을 가져왔음을 입증하였다. 조현진(2009)은 음악극 안에서의 연주 경험이 시설 청소년들의 공격적인 성향을 음악적 에너지로 전환하여 충동성과 공격성에 대한 조절능력이 향상되도록 하였고, 이는 곧 자기통제력 향상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김군자(1998)는 아동이 음악과 동작을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비사회적 태도와 위축성을 완화하여 자아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대인관계나 가정생활 안에서 긍정적인 경험의 기회가 부족한 다문화 아동에게 음악극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적절히 표현하도록 하여 자기표현 및 사회성에 효과적인 중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음악극을 활용한 음악치

료 선행연구는 그 대상이 일반아동으로 한정되어 있거나 노래와 악기를 중점적으로 활용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선행연구에서 노래와 악기를 중점적으로 활용한 이유는 다문화 아동의 미숙한 한국어 능력 때문이다(이지인, 2020; 조은지, 2017; 최진영, 2015).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기표현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다문화 아동으로 직접 가사와 멜로디를 창작하고 음악극에 사용되는 악기의 배치 또한 직접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료적 음악극이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과 사회성에 어떠한 치료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 앞서 연구자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과 사회복지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치료적 음악극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고, 기관 협조동의서를 얻었다. 연구자는 H아동센터에 치료적 음악극 프로그램 관련 신청서를 부착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다문화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과 연구 대상자의 권리에 관해 모집된 연구 대상자와 학부모가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전달하여 동의를 구하였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I시에 위치한 H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 2, 3학년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총 10명(실험집단 5명, 통제집단 5명)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표 Ⅲ-1>,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표 Ⅲ-2>와 같다.

<표 III-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집단구분	성 별	학 년	모 국적	부 국적	집단구분	성 별	학 년	모 국적	부 국적
A 실험집단	여	1	중국	한국	가 통제집단	남	2	필리핀	한국
B 실험집단	남	1	필리핀	한국	나 통제집단	남	3	베트남	한국
C 실험집단	남	3	베트남	한국	다 통제집단	여	3	중국	한국
D 실험집단	여	3	필리핀	한국	라 통제집단	여	1	베트남	한국
E 실험집단	여	3	일본	한국	마 통제집단	여	3	중국	한국

<표 III-2> 연구 대상자의 특성

A	<p>연구 대상자 A는 8세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다. A는 외동으로 부와 모, 3명의 가족이 함께 거주 중이며, 부모의 맞벌이로 학원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편이다. 낮을 가리고 소극적인 A는 새로운 친구보다는 기존의 친구와 함께 지내거나 혼자 생활하는 모습을 보인다. 부정확한 발음으로 인한 학교에서의 따돌림으로 말하기보다는 경청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A는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기에 불편하거나 서운한 점이 있어도 미소를 보이며, 상황에 순응하려는 편이다.</p>
B	<p>연구 대상자 B는 8세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다. 1남 1녀 중 둘째로 4명의 가족이 함께 거주 중이며,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누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다고 하였다. B는 한국말이 미숙한 모로 인해 타인과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B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공상을 자주 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며, 또래 관계를 회피한다. B는 타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동물 소리를 내거나 침묵 또는 “싫어”, “몰라”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외치는 편이다.</p>
C	<p>연구 대상자 C는 10세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다. 2남 2녀 중 막내로 둘째 누나를 제외한 3남매와 부와 모, 5명의 가족이 함께 거주 중이다. 모가 일을 하고 있으나 수입이 일정치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아이 양육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C는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내었다. C는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며 아기처럼 행동하고</p>

	<p>안겨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부정확한 발음과 또래보다 작은 체격으로 인해 또래에게 무시를 당하며, 이에 대해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고 있다. C는 자신의 약한 모습에 분노를 느끼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p>
D	<p>연구 대상자 D는 10세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다. 1남 1녀 중 둘째로 4명의 가족이 함께 거주 중이며, 부와 오빠와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다고 하였다. D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좋고 싫음을 표현하지 못해 자신의 의견보다는 친구의 의견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D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두 명의 친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안에서 곁도는 느낌을 받고 있다. D는 “나는 안돼.”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며, 관계 안에서의 불안감과 어려움을 보인다.</p>
E	<p>연구 대상자 E는 10세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다. 1남 2녀 중 막내로 5명의 가족이 함께 거주 중이다. 부모의 맞벌이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편이며 가족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듯한 행동을 보인다. 때문에, 자신의 관심이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며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는 A를 질투한다. E는 A와 함께 활동하는 것에 거부반응을 나타내며, 다가오는 A를 밀어내는 경향을 보인다. E는 자기주장이 강하여 타인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편이며, 그렇지 못할 시 눈물로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p>

2. 연구 설계

1) 연구 기간과 장소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파일럿 세션을 진행하였다. 파일럿 세션은 사전검사 전 M지역에 속해 있는 M기관에서 2명의 아동과 함께 3회기 동안 진행되었다. 그 후, 본 연구는 I시에 소재해 있는 H아동센터

에서 2019년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 2회, 매회 45분씩 총 15회기로 실시되었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치료적 음악극이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 통제집단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사용하였다. ‘사전-사후 검사 통제집단 설계’는 <표 III-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연구 대상자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배치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치료적 음악극 프로그램을 실험집단에만 시행하는 방식이다.

<표 III-3> 사전-사후 검사 통제집단 설계

집단	사전검사	음악치료(중재)	사후검사
실험집단	O ₁	X	O ₂
통제집단	O ₃		O ₄

X : 음악치료 프로그램

O₁, O₃ : 사전검사 (자기표현 척도, 사회기술 척도)

O₂, O₄ : 사후검사 (자기표현 척도, 사회기술 척도)

연구자는 연구 기간 내에 음악치료를 받지 못한 통제집단에게 실험집단의 음악 중재가 끝난 이후 2019년 12월 16일부터 1월 29일까지 치료적 음악극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3. 측정 도구

1) 자기표현 척도

자기표현 척도는 Rakos와 Schroeder(1979)가 개발하고 변창진과 김성희(1980)가 우리나라 문화적 배경에 맞게 재구성한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내용적 요소(9문항), 음성적 요소(7문항), 비언어적 요소(4문항)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4점, 가끔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 2점, 항상 그렇다 1점으로 구성되어있다. 합산점수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표현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 로 나타났다(변창진, 김성희, 1980).

<표 III-4> 자기표현 척도의 하위영역과 문항 구성

하위영역	문항 번호	주요 내용
내용적 요소	1,2,3,4,5,6,7,8,9	말하는 내용에 자기표현이 포함된 정도
음성적 요소	10,11,12,13,14,15,16	음성에 자기표현 요소가 나타나는 정도
비언어적 요소	17,18,19,20	표정이나 손발의 움직임에 자기표현 요소가 나타나는 정도

2) 사회기술 척도

사회기술 척도는 Gresham과 Elliott(1990)이 개발하고 권세은과 이순형(2002)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협동(10문항), 자기주장(10문항), 자기조절(10문항)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는 리커트 3점 척도로 전혀 0점, 가끔씩 1점, 자주 2점으로 구성되어있다. 합산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6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 로 나타났다(권세은, 이순형, 2002).

<표 III-5> 사회기술 척도의 하위영역과 문항 구성

하위영역	문항 번호	주요 내용
협동	8,9,15,16,20,21,26,27,28,29	집단 내 규칙 지키기, 도움 필요한 친구 도와주기, 친구와 함께 음악 과제 수행하기, 악기 및 사물 공유하기
자기주장	2,3,6,7,10,14,17,19,23,24	집단에서 자신의 의견 제안하기, 자발적으로 활동 참여하기, 친구의 잘한 점에 대해 칭찬하기
자기조절	1,4,5,11,12,13,18,22,25,30	갈등상황에서 적절히 타협하기, 친구와의 의견 차이 받아들이기

3) 연구 대상자 행동 질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고 실질적 현장자료를 반영하기 위해 매회기 녹화한 영상을 토대로 연구 대상자들의 행동 반응에 관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적 자료는 자기표현 척도의 하위요인과 사회기술 척도의 하위요인을 참고하여 고안한 행동관찰 항목을 토대로 행동관찰 항목에 해당하는 행동과 언어보고를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관찰항목은 <표 III-6> 과 같다.

<표 III-6> 자기표현과 사회성 행동관찰 항목

항목		내용
자기표현	내용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 표현하기 • 상대방을 배려하여 행동하기 • 상황에 적절한 내용 표현하기
	음성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적절한 음량으로 말하기 • 상황에 적절하게 가창하기
	비언어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바라보기 • 악기 사용하여 자기표현하기 • 동작 사용하여 자기표현하기
사회성	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내 규칙 지키기 • 친구와 함께 음악 과제 수행하기 • 악기 및 사물 공유하기
	자기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에서 자신의 의견 제안하기 •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기 • 친구의 잘한 점에 대해 칭찬하기
	자기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상황에서 적절히 타협하기 • 친구와의 의견 차이 받아들이기

4. 연구절차

1) 파일럿 세션

파일럿 세션은 실험 전, 본 연구에서 고안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대상자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활동을 평가하고 수정, 보완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고 치료목적에 따른 적합한 활동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파일럿 세션은 치료적 음악극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M지역에 속해 있는 M기관에서 2명의 아동과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3회로 진행되었다. 파일럿 세션 대상자는 평소에 자기표현과 사회성이 부족하여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으로 담당 부모님의 요청을 받아 모집되었다.

2) 연구 참여 동의 및 기초정보조사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 및 치료적 음악극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 그리고 개인정보 비밀보장 및 연구 대상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를 통해 연구 대상자 및 부모의 동의를 구하여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기초정보는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참여 동의 설문지 내용은 성별과 연령 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 의해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에게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3) 사전검사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과 사회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사전검사는 치료적 음악극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인 2019년 7월 30일에 연구자와 사회복지사 1명에 의하여 센터 내의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되었다.

4) 음악치료 중재

사전검사에 이어 2019년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9주간 총 15회기를 실시하였다. 각 회기는 연구자가 자기표현과 사회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성된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진행되었다.

5) 사후검사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과 사회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사후검사는 치료적 음악극 프로그램이 종결된 이후인 2019년 10월 4일에 연구자와 사회복지사 1명에 의하여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5. 음악치료 프로그램

본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매회기 총 45분간 진행되고 5분간 인사 노래를 부르며 활동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35분간 진행되는 본 활동에서는 해당 회기마다 구성되어있는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5분은 시행한 음악 활동에 대해 소감을 나누며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음

악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은 <표 Ⅲ-7>과 같다.

<표 Ⅲ-7> 음악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

단계	활동내용	목적
도입 (5분)	인사 노래와 활동 소개	사회성 향상, 친밀감 기대감 증진
활동 (35분)	음악치료 프로그램 활동 진행	자기표현과 사회성 향상
종결 (5분)	활동에 대한 소감 나누기 마무리 인사 노래 및 활동정리	자기표현 및 세션 종료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5회기 음악극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은 단계별 목표에 따라 탐색단계 1-3회기, 창작단계 4-13회기, 실행단계 14-15회기로 구성되었다.

탐색단계 1-3회기는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룹원과의 친밀감 증진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탐색단계는 다문화 아동이 음악극을 경험하기 앞서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통해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창작단계 4-13회기는 자유로운 의견 표현과 상호교류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유로운 의견 표현은 치료사가 제시하는 배경과 인물에 대해 아동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악기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음악을 창작하도록 하는 것에서 연습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호교류는 음악극 창작과정에서 그룹원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협동과 타협의 경험을 하면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실행 및 평가단계 14-15회기는 자기표현 향상과 사회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단계에서 아동들은 각자 맡을 역할을 분담하고 직접 음악극을

하면서 음악극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토의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였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면서 생기는 갈등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고, 함께 협동하여 음악극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아동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연습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적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 기술향상을 유도하였다. 이는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이 사회성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김연진, 2015). 마지막 회기인 15회기에는 음악극을 발표하고 발표가 끝난 후 서로를 칭찬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음악극 발표는 아동이 하나의 음악을 그룹원과 함께 완성하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표현과 사회적 기술 활용에 자신감을 얻도록 도왔다(장연주, 2015). 함께 만든 음악극 발표는 아동 각자가 소장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남겼다. 음악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활동 목표 및 활동내용은 <표 III-8>과 같다.

<표 III-8> 회기별 활동 목표 및 활동내용

회기	목표	활동내용	치료적 논거
1	라포형성 자기표현 향상 타인과의 교류향상	<p><나를 소개할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는 노래와 헤어지는 노래 • 규칙 및 약속 정하기 • 노래 빈칸에 자신의 이름, 별명, 좋아하는 음식, 꿈을 넣어 자기소개하기 • 노래 빈칸에 친구의 이름, 별명, 좋아하는 음식, 꿈을 넣어 친구 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 부르기 쉽고 간단한 구조의 노래는 아동이 낯선 환경 안에서 흥미롭게 활동에 참여하고 자기표현 할 수 있게 돕는다. • 그룹원과 규칙 및 약속을 함께 정하는 것은 사회성 요인 중 하나인 협동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 노래 가사를 통해서 타인의 소개를 듣는 경험은 타인을 인지하여 서로를 알아갈 수 있게 돕는다.

2	라포형성 자기표현 향상 타인과의 교류향상	<나의 여름방학, 들어볼래?> • 준비된 비트로 여름방학 때 하고 싶은 일 소개하기 • 악기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리듬을 표현하고, 표현한 리 듬을 모방하여 연주하기	• 노래 가사를 만드는 것은 자신 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리듬 모방은 상대방에 집중하 여 협동과 자기조절을 자연스레 익히고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라포형성 자기표현 향상 자기인식 및 자기 조절	<너와 나의 마음 표현하기> • 서로 다른 빠르기의 음악 을 듣고 리듬 막대나 신체로 자유롭게 표현하기 • 음악을 하기 전과 후의 마 음 상태를 스카프의 색을 선 택하여 표현하기	• 신체표현은 즉흥적으로 내면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하 며 폭넓은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 공한다. 또한, 신체표현 활동은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서로를 알 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돕는다.
4	자기표현 향상 협동 및 자기주장	<오늘은 내가 주인공> • 음계가 있는(톤차임) 악기 를 탐색하고 규칙을 지키며 차례대로 연주하기 • 펜타토닉 음계를 사용하여 지휘하며 음악 만들기	• 즉흥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경 험은 음악 만들기에 자신감을 가 지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준다. • 친구들 앞에서 지휘를 하는 것 은 노래 만들기에 자신을 적극적 으로 표현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며 그룹원들과 협동 하여 연주를 만들어가면서 상호 교류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5	자기표현 향상 협동 및 자기조절	<나의 노래를 들어봐> • 손 기호를 만들어 작은 별 연주하기 • 노래(도레미송) 빈칸에 가 사를 넣어 개사하기	• 친구들과 함께 손 기호를 만드 는 과정은 아동의 자유로운 표현 을 끌어낼 수 있다. • 함께 협동하여 노래 가사를 개 사하는 작업은 자신의 의견을 자 유롭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 을 익히도록 돕는다.
6	자기표현 향상 자기인식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 은> • 이야기에 나온 동그라미와	• 이야기에 적절한 악기선택과 연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탐색하고 비언어적으로

	및 자기 조절, 협동	등장인물을 탐색하여 대화하고, 자신의 생각을 악기로 자유롭게 표현하기 • 선율과 악기를 사용하여 동그라미 테마곡 만들기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신과 다른 의견의 친구들의 생각을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돌아가며 선율을 만드는 작업은 주도적으로 자기표현을 하고 그룹원의 선율을 경청하고 수용하게 되는 협동작업의 기초가 된다.
7	자기표현 향상 자기주장 및 협동	<여행을 떠나는 동그라미1> • 조각을 잃어버린 동그라미의 슬픔을 악기를 사용하여 표현하기 • 동그라미 테마곡 선율에 가사 완성하기 • 완성된 테마곡 부르기	•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음악, 가사, 악기연주를 창작하는 과정은 아동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표현한 감정을 지지받도록 한다.
8	자기표현 향상 자기인식 및 협동	<여행을 떠나는 동그라미2> • 분위기와 어울리는 소리를 탐색한 후 악기를 선택하여 배경음악 만들기 • 오선 종이에 악기스티커를 붙이며 배경음악 악보 만들기	• 이야기 분위기에 맞는 노래와 배경음악을 만드는 것은 아동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공감하는 것을 극대화하여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하나의 배경음악을 함께 만드는 협동작업은 아동에게 성취감을 제공한다. • 악기스티커를 통해 연주 구간을 표시하는 작업은 아동이 흥미롭게 악기연주 토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9 10	자기표현 향상 협동 및 상호교류	<친구를 만난 동그라미> • 등장인물들의 대사와 노래로 만들기 • 내용에 맞는 동작 만들기 • 북을 사용하여 동그라미의 여정 배경음악 만들기	• 테마 노래를 만들기 위한 fill in the blank 구조는 아동이 자신의 이야기를 부담감 느끼지 않고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그룹 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동작 활동은 타인과 원만한 의사

			<p>소통 및 상호교류를 위한 사회적 기술향상을 돕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그라미의 간절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타악기 즉흥 활동은 아동이 자유롭게 자신이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11 12	자기표현 향상, 자기조절 및 협동	<p><동그라미의 대비된 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그라미의 대비된 감정을 Major, minor를 사용하여 노래 만들기 • 동그라미의 감정과 표정 등을 악기와 동작을 사용하여 노래에 반영하기 	<p>• 음악극에 등장하는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그 감정과 분위기 등을 악기 또는 신체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객관적으로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jor, minor를 사용한 노래 만들기는 동그라미의 대비되는 분위기와 감정의 극대화된 표현을 촉진시킨다.
13	자기표현 향상 자기주장 및 협동	<p><완벽한 동그라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여행을 떠난 동그라미의 기분 토의하기 • 조각을 찾은 동그라미의 감정을 대사와 악기, 동작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기 • 제시된 2, 3음을 사용하여 선율을 만들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넣어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원들과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협동작업에 대한 성취감을 제공한다. • 2-3개의 제한된 음으로 노래를 만드는 경험은 아동이 음악 만들기 에 쉽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4	자기표현, 사회기술 증진	<p><동그라미의 여행 음악극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된 음악극 연주해보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 찾아 고치기 • 배역 정하기 • 음악극 준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을 완성하기 위하여 또래와 협력하는 과정은 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자기표현과 수용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15	자기표현, 사회기술 증진	<음악극 평가> • 음악극 발표와 동영상 촬영하기 • 음악극이 끝난 후 느낀 점과 칭찬 주고받기	• 또래 간의 칭찬을 하는 시간은 자신과 타인의 행동과 상호교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자기 발견을 하게 한다. • 친구들을 칭찬하는 과정은 그룹원들간의 친밀감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 완성된 작품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타인에게 보여주는 과정은 자신의 음악적 성취감을 극대화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
----	---------------------	---	---

6.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자기표현 척도와 사회기술 척도 점수 결과에 대한 양적 분석과 자기표현 및 사회기술 관련 행동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질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부모의 국적, 학년, 나이에 대한 빈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사전집단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표현 척도와 사회기술 척도 전체 및 그 하위요인 점수를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여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았다.

셋째, 프로그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변화량 즉, 각 집단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차이에 대해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여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았다.

넷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사전과 사후의 차이에 대한 전체적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별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그래프를 제시하였고, 집단별 사전과 사후점수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전체점수뿐 아니라 그 하위요인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치료적 음악극 과정에 나타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회기별로 녹화하였고, 영상을 통해 자기표현과 사회기술 행동을 질적으로 기술하고, 언어적 표현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보고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과 사회성에 치료적 음악극 프로그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는 사전-사후 검사를 비교 분석한 양적 연구 결과와 프로그램 진행 중 연구 대상자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여 분석한 질적 분석결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질적 분석은 매회기 녹화한 영상을 토대로 언어보고와 행동을 관찰하여 기술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성별, 부모의 국적, 연령, 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를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실험	통제	전체	
성별	남	2	2	4	40
	여	3	3	6	60
부 국적	대한민국	5	5	10	100
	그 외 국가	0	0	0	0

모 국적	중국	1	2	3	30
	필리핀	2	1	3	30
	베트남	1	2	3	30
	일본	1	0	1	10
나이	8세	2	1	3	30
	9세	0	1	1	10
	10세	3	3	6	60
학년	1학년	2	1	3	30
	2학년	0	1	1	10
	3학년	3	3	6	60
합계		10	10	20	100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음악치료 개입 전 자기표현 척도와 사회기술 척도의 사전점수에 대해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자기표현 전체점수와 하위영역점수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s > .05$). 또한 사회기술 전체점수와 하위영역점수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s > .05$). 따라서 두 집단은 동질한 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분석결과는 <표 IV-2>과 같다.

<표 IV-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분석

	실험집단(n=5)		통제집단(n=5)		U	Z	p	
	M	SD	M	SD				
자기표현 전체점수	49.20	3.42	51.00	3.67	7.50	-1.05	.292	
하위 영역	내용적요소	21.60	3.44	22.60	1.82	11.50	-.22	.829
	음성적요소	15.00	2.55	16.60	5.32	9.50	-.63	.530
	비언어적요소	12.60	3.21	11.80	1.64	11.50	-.21	.833
사회기술 전체점수	13.00	6.52	15.80	3.90	11.00	-.32	.746	
하위 영역	협동	4.00	3.39	7.00	1.00	6.50	-1.28	.202
	자기주장	5.20	2.17	5.20	1.64	10.50	-.43	.664
	자기조절	3.80	2.77	3.60	2.51	12.50	.00	1.000

* $p > .05$

3.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에 대한 치료적 음악극의 효과

1) 자기표현에 대한 효과

치료적 음악극을 실시 후 자기표현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변화량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IV-3>과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변화량에 대한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였다($p < .01$).

따라서 치료적 음악극은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3> 자기표현 변화량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실험집단		통제집단		U	Z	p
	M	SD	M	SD			
자기표현	29.00	6.20	3.20	3.77	.00	-2.62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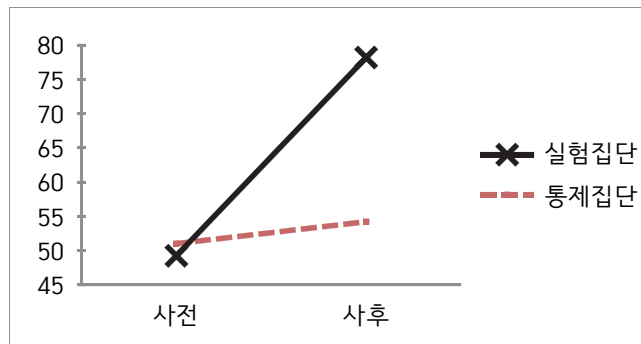
**p <.01

자기표현에 대한 점수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4>, <그림 IV-1>과 같다.

<표 IV-4> 자기표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집단	사전		사후		Z	p
		M	SD	M	SD		
자기표현	실험집단	49.20	3.42	78.20	7.79	-2.02	.043*
	통제집단	51.00	3.67	54.20	2.49	-1.47	.141

*p <.05



<그림 IV-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표현 평균점수 변화

실험집단의 경우 자기표현의 전체 평균점수가 사후검사 78.20(SD =7.79) 점으로 사전검사 49.20(SD =3.42)점에 비해 29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의 경우 사후검사 54.20(SD =2.49)점은 사전검사 51.00(SD =3.67)점에 비해 3.20 점 증가하였다. 검정결과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Z = -2.02, p < .05$),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 = -1.47, p > .05$).

따라서 치료적 음악극은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기표현의 하위영역에 대한 효과

치료적 음악극을 실시 후 자기표현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별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변화량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표 IV-5>와 같이 내용적 요소($p < .01$), 음성적 요소($p < .05$)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비언어적 요소($p > .05$)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치료적 음악극은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의 하위영역인 내용적 요소, 음성적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표 IV-5> 하위영역의 변화량 대한 Mann-Whitney *U* 검정

하위영역	실험집단		통제집단		<i>U</i>	<i>Z</i>	<i>p</i>
	M	SD	M	SD			
내용적요소	12.40	4.22	2.40	1.82	.00	-2.62	.009**
자기표현							
음성적요소	11.80	6.83	0.60	3.71	2.00	-2.19	.028*
비언어적요소	4.80	4.82	0.20	0.84	5.50	-1.49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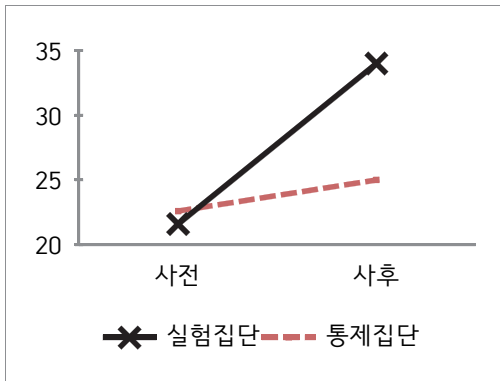
* *p* <.05, ** *p* <.0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표현 하위영역에 대한 사전과 사후 점수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6>, <그림 IV-2>, <그림 IV-3>, <그림 IV-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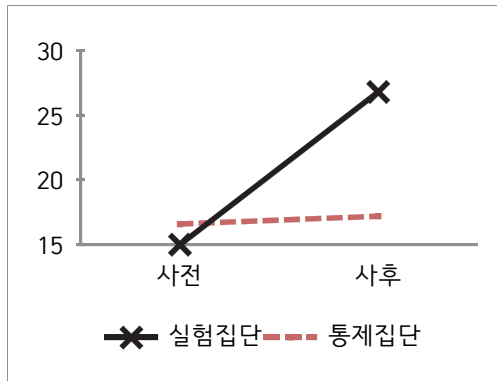
<표 IV-6> 자기표현 하위영역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하위영역	집단	사전		사후		<i>Z</i>	<i>p</i>
		M	SD	M	SD		
내용적요소	실험	21.60	3.44	34.00	3.08	-2.02	.043*
	통제	22.60	1.82	25.00	1.87	-1.84	.066
음성적요소	실험	15.00	2.55	26.80	4.71	-2.02	.043*
	통제	16.60	5.32	17.20	1.92	-.37	.715
비언어적요소	실험	12.60	3.21	17.40	2.30	-1.63	.104
	통제	11.80	1.64	12.00	1.41	-.58	.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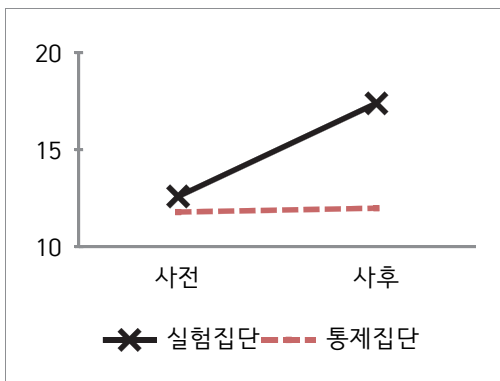
* *p* <.05



<그림 IV-2> 내용적 요소



<그림 IV-3> 음성적 요소



<그림 IV-4> 비언어적 요소

내용적 요소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은 사후검사 34.00(SD =3.08)점으로 사전검사 21.60(SD =3.44)점에 비해 12.40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의 평균은 사후검사 25.00(SD =1.87)점으로 사전검사 22.60(SD =1.82)점에 비해 2.40점 증가하였다. 검증결과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Z = -2.02, p < .05$),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Z = -1.84, p > .05$).

음성적 요소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은 사후검사 26.80(SD =4.71)점으로 사전검사 15.00(SD =2.55)점에 비해 11.8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의 평균은 사후검사 17.20(SD =1.92)점으로 사전검사에 16.60(SD =5.32)점에 비해 0.60점

증가하였다. 검증결과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Z = -2.02, p < .05$),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Z = -.37, p > .05$).

비언어적 요소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은 사후검사 17.40($SD = 2.30$)점으로 사전검사 12.60($SD = 3.21$)점에 비해 4.80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의 평균은 사후검사 12.00($SD = 1.41$)점으로 사전검사 11.80($SD = 1.64$)점에 비해 0.20점 증가하였다. 검증결과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Z = -1.63, p > .05$), 통제집단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Z = -.58, p > .05$).

따라서 치료적 음악극은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 하위영역인 내용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다문화 아동의 사회기술에 대한 치료적 음악극의 효과

1) 사회기술에 대한 효과

치료적 음악극을 실시 후 사회기술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변화량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IV-7>과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변화량에 대한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였다($p < .01$).

따라서 치료적 음악극은 다문화 아동의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7> 사회기술 변화량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실험집단		통제집단		U	Z	p
	M	SD	M	SD			
자기표현	28.80	5.54	-0.20	2.86	.000	-2.61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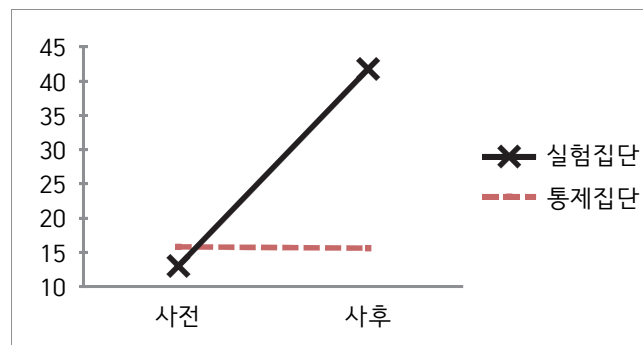
**p <.01

사회기술에 대한 점수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8>, <그림 IV-5>와 같다.

<표 IV-8> 사회기술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집단	사전		사후		Z	p
		M	SD	M	SD		
사회기술	실험집단	13.00	6.52	41.80	10.38	-2.02	.043*
	통제집단	15.80	3.90	15.60	5.86	-.18	.854

*p <.05



<그림 IV-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회기술 평균점수 변화

실험집단의 경우 사회기술 전체 평균점수가 사후검사 41.80(SD =10.38)점으로 사전검사 13.00(SD =6.52)점에 비해 28.80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의 경우 사후검사 15.60(SD =5.86)점으로 사전검사 15.80(SD =3.90)점에 비해 .20점 감소하였다. 검정결과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Z = -2.02, p < .05$),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 = -.18, p > .05$).

따라서 치료적 음악극은 다문화 아동의 사회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기술의 하위영역에 대한 효과

치료적 음악극을 실시 후 사회기술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별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변화량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표 IV-9>와 같이 협동($p < .01$), 자기주장($p < .01$), 자기조절($p < .01$) 3개의 하위영역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치료적 음악극은 다문화 아동의 사회기술 하위영역인 협동, 자기주장, 자기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표 IV-9> 하위영역의 변화량 대한 Mann-Whitney U 검정

하위영역	실험집단		통제집단		U	Z	p
	M	SD	M	SD			
협동	9.40	3.36	-2.00	4.12	.00	-2.63	.009**
사회적 기술							
자기주장	9.80	3.42	0.40	1.52	.00	-2.65	.008**
자기조절	9.60	2.07	1.40	2.51	.00	-2.62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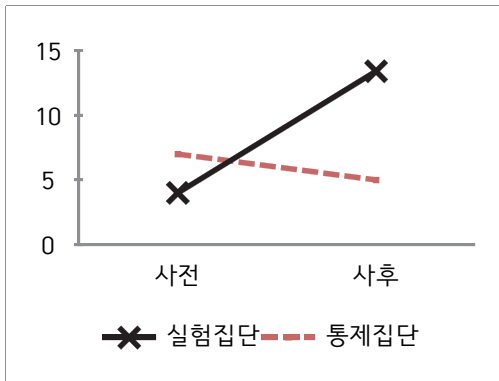
**p <.0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회기술 하위영역에 대한 사전과 사후 점수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10>, <그림 IV-6>, <그림 IV-7>, <그림 IV-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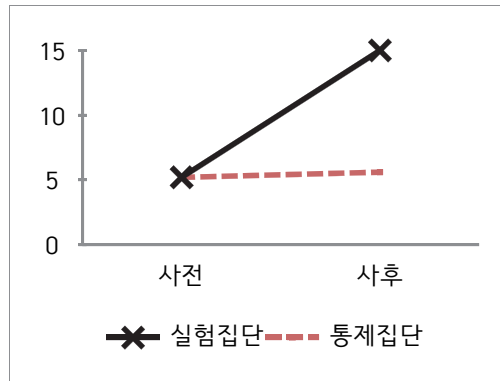
<표 IV-10> 사회기술 하위영역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하위영역	집단	사전		사후		Z	p
		M	SD	M	SD		
협동	실험	4.00	3.39	13.40	3.78	-2.03	.042*
	통제	7.00	1.00	5.00	3.46	-.96	.336
자기주장	실험	5.20	2.17	15.00	4.30	-2.03	.042*
	통제	5.20	1.64	5.60	1.34	-.45	.655
자기조절	실험	3.80	2.77	13.40	2.88	-2.02	.043*
	통제	3.60	2.51	5.00	2.92	-1.09	.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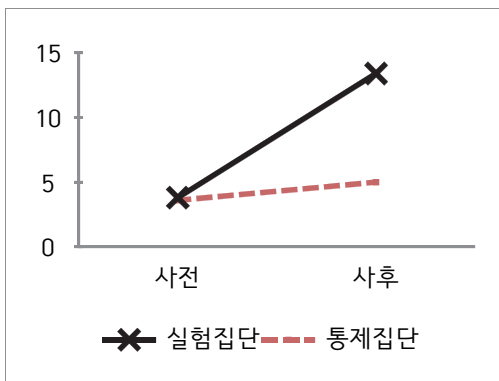
*p <.05



<그림 IV-6> 협동



<그림 IV-7> 자기주장



<그림 IV-8> 자기조절

협동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은 사후검사 13.40(SD =3.78)점으로 사전검사 4.00(SD =3.39)점에 비해 9.40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의 평균은 사후검사 5.00(SD =3.46)점으로 사전검사 7.00(SD =1.00)점에 비해 2.00점 감소하였다. 검증결과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Z = -2.03, p < .05$),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 = -.96, p > .05$).

자기주장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은 사후검사 15.00(SD =4.30)점으로 사전검사 5.20(SD =2.17)점에 비해 9.80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의 평균은 사후검사 5.60(SD =1.34)점으로 사전검사 5.20(SD =1.64)점에 비해 .40점 증가하였

다. 검증결과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Z = -2.03, p < .05$)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 = -.45, p > .05$).

자기조절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은 사후검사 13.40($SD = 2.88$)점으로 사전검사 3.80($SD = 2.77$)점에 비해 9.60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의 평균은 사후검사 5.00($SD = 2.92$)점으로 사전검사 3.60($SD = 2.51$)점에 비해 1.40점 증가하였다. 검증결과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Z = -2.02, p < .05$)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 = -1.09, p > .05$).

따라서 치료적 음악극은 다문화 아동의 사회기술 하위영역인 협동, 자기주장, 자기조절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과 사회성 행동의 질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음악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연구 대상자들의 자기표현 행동과 사회성 행동 반응을 토대로 질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질적 분석은 자기표현 척도와 사회기술 척도의 하위영역에 따라 관찰항목을 구성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행동을 묘사하고, 언어보고를 요약하여 기술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자기표현, 사회성 표적 행동으로 설정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기표현 표적 행동의 내용적 요소는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 표현하기’, ‘상대방 배려하기’, ‘상황에 적절한 내용 표현하기’이며, 음성적 요소는 ‘상황에 적절한 음량으로 말하기’, ‘상황에 적절하게 가창하기’이다. 비언어적 요소는 ‘대화할 때 상대방 바라보기’, ‘악기 사용하여 자기표현하기’, ‘동작

사용하여 자기 표현하기'로 설정하였다. 사회성 표적 행동의 협동은 '규칙 지키기', '친구와 함께 음악 과제 수행하기', '악기 및 사물 공유하기'이며, 자기주장은 '자기 의견 제안하기', '자발적으로 활동 참여하기', '친구의 잘한 점 칭찬하기'이다. 자기조절은 '갈등상황에서 적절히 타협하기', '친구와의 의견 차이 받아들이기'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대상자들의 보고 내용은 <표 IV-11>, <표 IV-12>, <표 IV-13>, <표 IV-14>, <표 IV-15>와 같다.

1) 연구 대상자 A의 자기표현, 사회성 행동 변화

연구 대상자 A는 활동 초기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의견을 표현하며 그룹원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A는 활동 초기에 입을 다문 채 말을 하지 않았으며 그룹안에서도 눈치를 보며 혼자 활동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치료적 음악극을 통해 A는 음악 안에서 먼저 자신의 상황에 대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룹 활동 안에서 그룹원에게 먼저 의견을 제안하거나 그룹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함께 음악을 만들어나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A는 5회기 이후부터 자신감있게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그룹원인 D와 E의 눈을 마주치며 반갑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A는 치료사에게도 먼저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제안하였으며, 그룹원과도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악기를 가지고 B와 가벼운 장난을 치는 등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A는 치료적 음악극을 통하여 B와 D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과 B에게 악기를 양보하는 모습, 먼저 손을 들어 의견을 표현하는 등의 자기표현과 사회성 행동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표 IV-11> 연구 대상자 A의 언어보고와 행동 예시

항목	자기표현 관련 언어보고와 행동 예시
내용적 요소	“(음악극이 끝난 후의 느낌을 묻자)노래 부르는 것보다 악기연주가 좋아요. 재밌어요. 또 하고 싶어요.” “(자리가 불편한 듯 찡그리고 있는 D를 보며 손짓한다)자리 불편해? 내가 옆으로 조금 갈게 이쪽으로 와.”
음성적 요소	“(치료사를 보며 정확한 목소리로)선생님,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A는 활동 초반에 입을 다물거나 립싱크를 보였으나 6회기 이후부터 큰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관찰됨.
비언어적 요소	“(A, D의 눈을 바라보며)나는 여기에서 레인채이커하고 싶어 여기에선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같아.” “선생님 제 기분은 이거예요. 쿵쿵쿵.” “(한쪽 손을 높게 들고 다른 한쪽은 치료사가 볼 수 있게 팔을 흔들며 자신의 얼굴을 가리킨다)저요, 저요.”
사회성 관련 언어보고와 행동 예시	
협동	“(악기를 만지는 B의 어깨를 두드리며)이제 그만, 너 차례야. 앞에 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 “(핑거십벌을 들어 B에게 건넨다)자 이거 내가 줄게 너 먼저하고 나 줘.”
자기주장	“(악보를 손으로 가리키며 비브라톤을 흔든다)여기 시작할 때 이걸로 하는 건 어때?” “빨리 시작해요. 노래 불러요.” “까먹을 때마다 언니들이 옆에서 알려줘서 다행이었어요.” “언니 그거 벌써 외웠어? 멋지다.”
자기조절	“(아쉬운 듯 E의 얼굴을 쳐다보지만)그래 알겠어, 이걸 여기에 놓자.”

연구가 끝난 후 사회복지사를 통해 연구 대상자 A의 자기표현과 사회성 행동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A가 음악 중재를 받은 이후부터 자신의 의견을 정확한 목소리로 표현하고, 타인과의 눈 마주침을 유지하며 음악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등 긍정적인 참여를 나타내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2) 연구 대상자 B의 자기표현, 사회성 행동 변화

연구 대상자 B는 활동 초기 참여하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옆드려있는 모습

이었으나,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그룹원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B는 초기에 “싫어”, “안 해”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나 “크롱”, “깡” 등의 이상한 소리로 인해 그룹원의 질타를 받았으며, 주위를 신경 쓰지 않고 악기를 크게 치는 등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러나 회기가 진행될수록 B의 부정적 언어는 감소하고 주제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B는 악기에 관심을 보이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룹원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는 부분에서 맞춰가는 모습 및 그룹원에게 먼저 어려운 부분을 물어보며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 등의 변화를 나타냈다. 치료적 음악극을 통해 B는 음악 안에서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그룹 활동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제시할 뿐 아니라 협동작업을 통해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갈등에서도 타협하는 모습 등의 자기표현과 사회성 행동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표 IV-12> 연구 대상자 B의 언어보고와 행동 예시

항목	자기표현 관련 언어보고와 행동 예시
내용적 요소	“(악기 소리에 놀란 A를 바라보며)놀랐어? 미안해 살살칠게.” “저는 친구를 만나면 너무 기뻐서 울 거예요(두 손을 눈 아래 놓으며 입을 삐죽인다).” “(음악극이 끝난 후)더 잘할 수 있는데, 또 하고 싶어요.”
음성적 요소	“(바다를 바라보며 슬픈 목소리로)저는 내려놓지 않을거예요, 친구가 슬프니까, 썩쓸할 것 같아요.” B는 활동 초반에 “노래 싫어.”를 외치며 옆드려있는 모습이었으나 점차 그룹원들을 유도하며 노래 부르는 모습이 관찰됨.
비언어적 요소	“(E를 바라보며)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알려줘.” “저는 오늘 너무 기뻐요 타다다다(두 손으로 북을 빠르게 연주한다).” “(한쪽 손을 들며)이거 하고 싶어요.”
사회성 관련 언어보고와 행동 예시	
협동	“그럼 누나들 끝나고 꼭 시켜주세요. 기다릴 거예요.” “(연주에 어려움을 느끼는 A를 바라보며)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세계 두드리는 거야.” “(북을 요청하는 C에게)형아 나랑 같이 쓰자 내가 들릴테니 형아가 이걸로 쳐.”

자기주장	“(손으로 라운드벨을 돌리며)나 이거 하고 싶은데 여기에다 넣으면 안 돼?” “같이 연주해서 어려운데 E가 알려주니까 좋아요.” “누나들이랑 형이 모르는 거 도와줘서 좋았어요.”
자기조절	“오늘 태권도에서 친구들이 짜증나게 해서 때려주고 싶었는데, 싸우는 건 안 좋으니까.. 그냥 참았어요.” “나도 이 악기 하고 싶은데, C가 아니라고 해서 이걸(윈드차임)로 바꿨어요. 근데 이 소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연구 대상자 B의 자기표현과 사회성 행동 변화는 사회복지사의 언급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B가 음악 중재를 받은 이후부터 표정이 밝아지고 타인과 눈을 바라보며 먼저 인사를 하거나 대화하는 모습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또한 “흥”, “싫어”와 같은 부정적인 말이 감소되고, 도움이 필요할 때 타인에게 요청하는 등 자발적인 교류를 시도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3) 연구 대상자 C의 자기표현, 사회성 행동 변화

연구 대상자 C는 활동 초기에 계속 돌아다니거나 누워있는 등 활동에 거부반응을 보였으나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의견을 제안하고 그룹원과 협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C는 초기 충동적인 성향으로 그룹원과 갈등이 잦은 모습을 보이며 언어적 소통과 상호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치료적 음악극을 통해 C는 악기 활동에 흥미를 보이며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표현하였으며, 활동 안에서 규칙을 지키고 또래와의 갈등을 적절히 대처하는 모습의 변화가 나타났다. C는 6회기 이후부터 신체를 사용하여 이야기에 맞춰 춤을 추는 등 행동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으며, 그룹원인 A와도 눈을 마주치며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등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치료사에게도 “언제 시작해요”, “빨리하고 싶어요.”라며 활동을 서두르는 모습과 가사

를 만드는 D를 칭찬하며 손뼉을 치는 등의 행동을 나타내었다. 치료적 음악극을 통해서 C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그룹원과의 협동을 통해 자신이 맡은 배역을 올바르게 진행하는 등의 자기표현과 사회성 행동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표 IV-13> 연구 대상자 C의 언어보고와 행동 예시

항목	자기표현 관련 언어보고와 행동 예시
내용적 요소	“(손을 들며)저 할래요. 저, 저 높은 거 하고 싶어요.” “저 지휘 할래요.” “저는 친구와 함께 굴러갈거예요.” “아쉬워요. 왜냐면 친구가 아니었으니까요.”
음성적 요소	“저 먼저 할래요.” 발표나 주장 할 때는 큰 목소리로 나타내나 그룹 활동에서는 목소리를 조금 줄여 차분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관찰됨. C는 노래 활동 시 엎드려있거나 립싱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나타내어 노래하는 모습이 관찰됨.
비언어적 요소	“(D의 눈을 바라보며)이건 뭐야? 어떻게 하면 돼?” “(실로폰을 바라보며 말렛으로 두드린다)그냥 알록달록한게 이뻐서 골랐어요. 저랑 다르잖아요. 이렇게 두드릴거예요.” C는 이야기의 활동 분위기에 따라 표정과 신체를 사용하여 다르게 표현하는 모습이 관찰됨.
사회성 관련 언어보고와 행동 예시	
협동	“(손을 좌우로 흔들며 E를 바라본다)아니야, 여긴 D가 나올 차례야.” “B야 너는 친구들이라 여기서 너가 나오면 돼. 모르면 날 봐 알려줄게.” “B야 그럼 손만 흔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녕, 이렇게.” “(B에게 악기를 주며)그럼 조금 하고 나 줘. 나도 연습해야 해.”
자기주장	“여기보단 밝은 부분에 하는 건 어때?” “빨리 앉아 시작해야 해. 악기 하고 싶다고.” “(놀란 표정으로 D를 바라본다)너 짱이다, 그걸 어떻게 다 외웠어?”
자기조절	“아, 미안. 나쁜 말 하지 않기로 했는데, 미안.” “미안해, 나도 같이 연주가 하고 싶어서 그랬어. 이제 그만할게.” “여기는 세게 치는 게 좋은데 별로야? 알겠어, 조금 줄여볼게.”

연구 대상자 C의 자기표현과 사회성 행동 변화는 담당 사회복지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C가 음악 중재를 받은 이후부터 자신의 생

각과 요구를 타인에게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모습과 또래 관계 속에서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고 문제행동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4) 연구 대상자 D의 자기표현, 사회성 행동 변화

연구 대상자 D는 활동 초기에 그룹원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의견을 표현하며 그룹원들과 함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D는 초기에 자신이 선택한 악기에만 집중하고 의견 나눔에 있어서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행동 및 그룹원들과 함께 하는 작업을 어려워하여 눈을 피하며 거부하는 행동이 나타났다. 그러나 치료적 음악극을 통해 D는 자신감을 얻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행동이 나타났으며, 그룹원에게 먼저 눈을 맞추며 인사를 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점차 보이기 시작하였다. D는 특히 가사 만들기에 흥미를 보이며 조금씩 자신감을 보였으며, 5회기 이후부터 자신의 의견을 언어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D는 규칙을 지키며 그룹원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왔고, 활동에 어려움을 보이는 A와 B, C에게 자발적으로 다가가 도움을 제공하는 등의 자기표현과 사회성 행동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표 IV-14> 연구 대상자 D의 언어보고와 행동 예시

항목	자기표현 관련 언어보고와 행동 예시
내용적 요소	“사실 연두색을 하고 싶었는데, E가 선택할 것 같아서 흰색을 골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안 맞으니까, 아니면 속상한 느낌.”
음성적 요소	“저는 머릿속에 노래 가사가 떠올라요.” “노래 만들고 일어나서 발표하는 건 어때요?” D는 초반에 치료사의 질문에만 답하거나 고개를 끄는

	등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점차 먼저 질문을 하는 등 활동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이 관찰됨. 또한, 작은 목소리로 인해 들리지 않던 초기와 달리 점차 목소리를 높이며 노래에 참여하는 모습이 관찰됨.
비언어적 요소	“(B의 눈을 보며 악기에 손을 올린다)너 때문에 대사가 안 들려. 조금만 약하게 쳐줘.” “짜증나요(복을 두드리며). 이게 지금 제 기분이에요(황황황황).” “(양 손바닥을 얼굴 옆으로 붙이며 밝은 표정으로)친구를 만나면 기쁜 표정을 지으며 만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사회성 관련 언어보고와 행동 예시	
협동	“(손바닥을 마주치며 그룹원들을 집중시킨다)이 시간에는 조용하기로 했잖아, 선생님 말씀하실 땐 가만히 들어야지.” “(A의 손을 잡으며)아니야, 뽀뽀밤. 하나들셋, 같이 해보자, 시작.” “(E에게 카바사를 양보한다)그럼 조금 하고 나 줘. 나도 연습해야 해.”
자기주장	“(B를 바라보며 시범을 보인다)이런 식으로 살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여러개 말고 하나만 연주하는 건 어때? 모든 부분에 넣으면 시끄러울 수 있으니 이쪽 부분에만 살짝씩 넣자.” “E야 너가 말한 거 이거 소리 좋은데?” “C 팩맨 표현하는 거 너무 웃겨요, 연기하면 잘할 것 같아요.”
자기조절	“대화? 별론데... 이걸로 할거야? 선생님, ‘으 추워 잠바는 어디 없나’로 바꿀래요.”

담당 사회복지사는 음악극이 끝난 후 연구 대상자 D의 자기표현과 사회성 행동 변화를 언급하였다. 사회복지사는 D가 음악 중재를 받은 이후부터 밝은 표정으로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과 음악 활동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표현하고 또래 관계의 문제 속에서 해결해나가려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5) 연구 대상자 E의 자기표현, 사회성 행동 변화

연구 대상자 E는 활동 초기에 노래 부르기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D 외의 그룹원과는 교류하지 않는 모습이었으나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목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르고 그룹원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E는 초기에 “저는

학교 음악 시간에도 노래는 안 불러요.”라며 입을 닫고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D 옆에 앉아서 그룹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행동 등이 보였다. 그러나 치료적 음악극을 통해 E는 목소리를 높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자신의 의견을 줄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모습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E는 5회기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으며, 그룹원인 A와 B와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E는 그룹원과 협동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모습이었으며, 어려움을 보이는 B에게 자발적으로 다가가 시범을 보이며 알려주는 행동, 자신의 의견을 줄이고 그룹원들의 의견을 수긍하며 듣고 조율해나가는 모습 등의 자기표현과 사회성 행동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표 IV-15> 연구 대상자 E의 언어보고와 행동 예시

항목	자기표현 관련 언어보고와 행동 예시
내용적 요소	“(콰이어차임을 들며)저 할래요, 이걸 어떻게 연주하면 돼요?” “(음악극이 끝난 후)부끄러워서 공연하기 싫었었는데 재밌었어요.”
음성적 요소	E는 목소리가 크고 짜증이 섞인 목소리가 많았으나, 점차 활동에 맞게 목소리를 줄이고 부드러운 톤으로 변화됨이 관찰됨. E는 초기에 “저는 노래 안해요, 학교에서도 노래 안 불러요.”라며 입을 다물고 옆드려있거나 판짓을 하는 모습이었으나 점차 목소리를 높여 노래하는 모습이 관찰됨.
비언어적 요소	“(B의 눈을 바라보며)B야, 여기선 이 약기로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그룹원들을 바라보며)다 같이 해보자.” “(양 손에 말렛을 들고 북을 두드린다)오늘 기분 별로였는데 드럼 두드리니까 스트레스 풀려요.”
사회성 관련 언어보고와 행동 예시	
협동	“(나가려는 B와 C를 잡으며)음악 시간에 나가면 안돼. 이리로 들어와.” “(리듬연주에 어려움을 느끼는 C를 보며)그거 아니고 이거. 나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연주순서를 틀리는 A에게)이제 쳐야해, 나 보면서 따라와.”
자기주장	“(D를 보며 북을 친다)시작할 때 이렇게 한번 치는 게 어때?” “팩맨

같다 픽맨. 동그라미 여행 말고 픽맨의 여행 어때요? 픽맨의 여행!” “D는 진짜 가사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손으로 C를 가리키며)C 드럼 잘쳐요. 아, 애 기타도 잘해요.”

자기조절

“(음악극에 사용할 악기가 A와 조율이 되지 않자)그럼 2개를 섞자. 이렇게 해야 너랑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음악극이 끝난 후 담당 사회복지사는 연구 대상자 E의 자기표현과 사회성 행동 변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었다. 사회복지사는 E가 음악 중재를 받은 이후부터 자신의 의견을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모습과 또래 관계에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자발적으로 교류를 시도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V. 결 론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에게 치료적 음악극을 시행하여 자기표현과 사회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시에 소재한 H 아동센터에서 다문화 아동 1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험집단 5명, 통제집단 5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9년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 2회, 45분씩 총 15회기로, 실험 집단에게만 치료적 음악극을 시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과 사회성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표현 척도와 사회기술 척도검사를 실험 전후에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음악치료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자기표현과 사회성 행동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매회기 녹화한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행동과 언어적 표현을 질적으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적 음악극은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 향상에 효과가 있다. 치료적 음악극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자기표현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다($p < .05$). 이러한 결과는 치료적 음악극이 악기연주와 신체 활동을 통한 비언어적 표현을 돕고 가사토의, 가사공유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는 음악극 경험이 아동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 향상을 입증한 김숙정(201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통계 결과를 보면 치료적 음악극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자기표현 하위영역인 내용적 요소와 음성적 요

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반면 비언어적 요소는 실험집단의 사후점수의 평균이 사전점수의 평균보다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이러한 결과는 대상 인원이 통계적 정확성을 기대하기에 적은 수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N=10$).

둘째, 치료적 음악극은 다문화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 치료적 음악극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사회기술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으며($p < .05$), 하위영역인 협동, 자기주장, 자기조절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이러한 결과는 치료적 음악극이 그룹원과 상호작용하며 창작, 합주, 공연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 아동의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권윤주, 2010; 정태미, 2010)를 지지하며, 음악극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다문화 아동의 사회성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고한 성한나와 김영신(201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치료적 음악극이 다문화 아동의 사회성에 효과적인 중재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치료적 음악극은 치료상황에서 나타난 연구 대상자의 자기표현 행동과 사회성 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질적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아동은 프로그램 초기에 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회피하는 경향과 그룹 안에서 또래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보였다. 치료적 음악극을 통해 아동들은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점차 자신의 의사와 목소리를 분명하게 나타내어 ‘팩맨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음악극을 재탄생 시켜 완성하였다. 또한, 아동들은 자발적으로 악기 또는 준비물을 그룹원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등 음악극 안에서 그룹원의 반응을 살피며 행동을 조절하는 변화된 모습이 나

타났다. 이는 치료적 음악극에서 아동이 자연스러운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경험하여 사회관계 기술을 습득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연습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적 음악극은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과 사회성에 효과적인 치료 중재이자 심리적 지원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음악치료 임상적 측면과 연구적 측면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상적 측면에서는 치료적 음악극이 환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결여된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과 사회성 향상에 효과적인 사회적 지원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적 측면에서는 본 연구의 유의미한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치료적 음악극이 다양한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증가하는 다문화 아동의 필요와 요구를 인식하여 다문화 아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차원과 민간차원에서의 지원이 활발히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적절한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아동들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I시 소재의 H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작아 이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대상자의 표집 범위와 크기를 확대하고, 성별과 연령, 국적에 따른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다문화 아동들이 접하는 또래들은 대부분 일반아동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있는 그룹을 대상으로 확장하여 진행함으로써 치료의 효과가 증대되는 연구를 진행하기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의 치료적 음악극은 15회기로 구성되어 자기표현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더욱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치료적 음악극 효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 프로그램이 다문화 아동의 비언어적 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못하였으나, 행동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에게 비언어적 요소까지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 기회와 구조를 제공하여 비언어적 표현을 더욱 나타낼 수 있게 확장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강경선 (2012). 정신 재활 회원을 위한 음악치료 임상 실습에서의 동기부여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9(1), 37-53.
- 강문주 (2013). 우쿨렐레연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사회복지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문희 (2013).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전주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병순, 이경립, 김성경, 정의중, 박영숙 (2010). *지역아동센터의 이해와 실제*. 서울: 학지사.
- 강혜진 (2011).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요구 분석.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 (2006).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https://www.moe.go.kr>
- 교육부 (2006).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 연구*.
<https://www.moe.go.kr>
- 교육부 (2018). *2014-2017년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
<https://www.moe.go.kr>
- 권세은, 이순형 (2002).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서 조망 능력의 비교. *아동학회지*, 23(2), 107-120.
- 권윤주 (2010).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희진 (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자기표현에 미

- 치는 원예치료의 지속적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연 (2013).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력 발달과 자음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은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이 경험하는 가정, 사회, 문화적 어려움에 대한 아동과 교사의 인식 비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군자 (1998). 음악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김미선 (2009).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연, 강문희 (2005). 사회극이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기표현능력 및 자기표현 행동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26(4), 1-20.
- 김수연 (2009). 초등학교 고학년 정인지체 아동의 사회성 기술에 대한 통합 교사와 일반아동의 중요도 인식.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인 (2010). 다문화가정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 심리적 특성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정 (2011). 음악극 만들기 경험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진 (2015). 정서순화예술놀이를 통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 향상 연구. 부모교육연구, 12(1), 39-61.
- 김영애 (2017). Movement Dialogue 무용동작치료를 통한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 및 사회성 향상 연구. 무용동작심리치료연구, 2(1), 39-55.

- 김유리, 이현정 (2016).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어휘력과 문해 능력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7(6), 263-279.
- 김은선 (2010).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적·감정적 자기표현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연, 김미순, 황해영 (2015). 다문화 학생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교육문화연구**, 21(5), 145-177.
- 김인숙, 이경희 (2011).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7(4), 57-73.
- 김주애 (2014). 시설보호 아동의 자기 표현력 향상을 위한 음악극 프로그램 창작하기 사례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은 (2016). 창작 음악극을 이용한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기조절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리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고찰.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부현, 김연이 (2011).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 연구. **다문화교육**, 2(3), 19-58.
- 남정희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주, 방희정 (2007). 가정결손 여부가 저소득 가정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1(3), 113-128.
- 박선희 (2010).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스트레스 완화와 또래 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0(1), 25-51.
- 박선희 (2011).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

- 환경, 12(4), 59-68.
- 박순희 (2009).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과 사회적응. **한국아동복지학**, 29, 125-154.
- 박주영, 최일선 (2012). 창작 음악극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연구**, 41(2), 369-390.
- 박현미, 손명희 (2012).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놀이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6(3), 69-81.
- 배성진 (2018). 음악극 창작활동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성, 자기표현력,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창진, 김성희 (1980). 주장훈련 프로그램. **학생지도연구**, 13(1), 51-85.
- 서정희 (2009).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향상에 미치는 효과. 배재대학교 행정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종남 (2008).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및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방안. **다문화교육연구**, 54, 6-27.
- 서현 (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위한 준비과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향상에 미치는 효과. 배재대학교 행정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현, 이승은 (2007). 농촌 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선남이 (2013).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설동훈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손성민 (2010). 뇌 병변 장애아동의 자기표현능력을 위한 음악치료 활동의 비교 연구: 악기연주, 노래 만들기, 음악치료 놀이극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솔이 (2017).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 능력과 언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수경, 채영란 (2010). 장독립적-장의존적 인지양식에 따른 유아의 의사소통전략과 사회성 분석. **어린이미디어연구**, 9(1), 243-258.
- 신정원 (2017). **다문화 특수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인식**.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병희 (2016). **다문화가정 아동의 지역사회연계 활동 서비스에 대한 사례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춘미 (2014). **다문화 특수교육에 대한 초등 특수교사의 인식**.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http://www.mogef.go.kr/>
- 여성가족부 (2018).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현황**. <http://www.mogef.go.kr/>
- 오선화, 황은영, 전유미 (2016). 음악 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변화 및 우울감소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2(3), 203-225.
- 오성배 (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오인수 (2014).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괴롭힘 피해 경험과 심리문제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5(4), 219-238.
- 우희숙 (2010). **다문화 교육의 이해**. 서울: 양서원.
- 유명선 (2012). **양주별산대놀이를 활용한 음악극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선영, 강경선 (2016). 노래심리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

- 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8(2), 119-138.
- 윤희정 (2005). **음악극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미, 정규진, 최애나 (2011).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표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7(3), 39-61.
- 이선미, 이선화 (2009). 아동, 청소년 상담: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상담학연구**, 10(4), 2273-2286.
- 이선희 (2010).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사회성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 (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예술치료 단일사례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 (2007). 국제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83-105.
- 이인원, 최기영 (2006). 또래 협동 음악극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1(3), 77-99.
- 이진희 (2016). **집단표현 예술심리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주 (2006). 치료사-내담자 관계에서 음악의 역할에 대한 사례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3(2), 29-44.
- 임미영 (2015). **성경 중심의 음악극 프로그램이 주일학교 아동의 영적 안정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준애 (2011). **다문화 아동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

- 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연주 (2015). 교육연극을 활용한 다문화교실 액션 리서치: 또래 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3(3), 25-44.
- 정태미 (2010). 음악치료 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주 (2001). *인간행동과 음악: 음악은 왜 치료적인가*. 서울: 학지사.
- 정현주, 김동민 (2005). *아동들을 위한 음악치료 놀이극*. 서울: 학지사.
- 제갈민정 (2019).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표현 및 자발성을 위한 미술치료 질적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지 (2017).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상 (2010). *한국 다문화주의의 특징과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현진 (2009). *시설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위한 음악극 활동 사례연구: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효주 (2012). *다문화가정 유아의 또래 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극 프로그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세진 (2016). *다문화 아동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정책 분석 연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숙, 송하나 (2013). *발달심리학 전 생애: 아동 청소년 성인*. 파주: 교문사.
- 최민영 (2015). *다문화가정 아동의 강강술래 무용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자기 표현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애나 (2012). 노래 중심 음악 치료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8(4), 1-19.

- 최연, 권호순 (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미디어중독 현상과 미디어교육 방안, **다문화사회연구**, 7(2), 61-84.
- 최은실, 윤선희 (2009). 음악치료 놀이극 프로그램이 통합교육과정에서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5(1), 71-90.
- 최진영 (2015).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 표현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9). 지역별 다문화 출생.
<http://kostat.go.kr/wnwearch/search.jsp>
- 통계청 (2019). 인구 총 조사: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http://kostat.go.kr/wnwearch/search.jsp>
- 한송이 (2016). 고전음악을 활용한 유아 음악극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혜진 (2010).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 증진을 위한 창작 음악극 프로그램 효과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7(1), 37-59.
- 현경자 (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이용과 결혼의 안녕 및 희망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66(2), 127-157.
- 호결 (2010). 도예치료기법을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민주, 순진이 (2017).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3(3), 133-155.
- 홍영숙 (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진, 이근매 (2014). 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임상미술심리연구**, 4(2),

115-145.

황미경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 애착, 또래 애착 및 사회불안과의 관계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lbert, L., & Emmons, S. (1978). *Your perfect right: A guide to assertive behavior*. San Luis Obispo, CA: Impact Publisher.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Bruscia, K. E. (1989). *Defining music therapy*. Barcelona: Barcelona Publisher.

Burns, D. S. (2001). The effect of bonny method of guided imagery and music on the mood and life quality of cancer patients. *Journal of Music of Therapy, 38*(1), 51-65.

Choi, M. H. (2010). A Pilot Analysis of the Psychological Themes Found During the CARING at Columbia-Music Therapy Program with Refugee Adolescents from North Korea. *Journal of Music Therapy, 47*(4), 380-407.

Jespersen, K. V., & Vuust, P. (2012). The effect of relaxation music listening on sleep quality in traumatized refugees: A pilot study. *Journal of Music Therapy, 49*(2), 205-229.

Kennedy, R., & Scott, A. (2005). A Pilot Study: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Interventions on Middle School Students' ESL Skills. *Journal of Music Therapy, 42*(4), 244-261.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 (NAMT) (1989). *Music Therapy as a career*.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

- Radocy, R. E., & Boyle, J. D. (1997). Functional applications of music in contemporary lif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sical Behavior*, 31-64.
- Rakos, R. F., & Schroeder, H. E. (1979). *Self-directed assertiveness training*. New York: Stan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Effect of Therapeutic Music Drama on Self-Expression and Sociality of Multicultural Children.

Kim, Hye young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effects of therapeutic music drama on self-expression and sociality of multicultural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en multicultural children who go to H children's center located in I city. They were assigned to five experimental groups and five control groups randomly. The therapeutic music drama program was conducted in a group session totaling 15 sessions, 45 minutes per two sessions a week for the experimental group from Aug. 5 to Sept. 27, 2019.

Prior to performing a therapeutic music drama,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conducted a preliminary test on the self-expression scale and social technology scale, and after the music therapy was over, the follow-up test was conducted using the same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Mann-Whitney U test and the Wilcoxon Matched pair test with the SPSS 20.0 statistical program. In addition, it describes the behavior and verbal expressions of those who were studied during the music drama program in order to see the changes in the experimental group.

Studies have shown that experimental groups participating in therapeutic music drama have show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expression score and sociality score compared to control groups ($ps < .05$). Analysis of the lower areas self-expression, the content, negative and non-verbal elements show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s score more than the control group ($ps < .05$), bu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 > .05$). All three factors of the sub-elements of sociality, which are cooperativeness, self-assertion, and self-regulation increased significantly ($ps < .05$).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behavior of the subjects in the course of the therapeutic music drama program showed that the subjects' self-expression behavior and social behavior showed positive changes overall compared to before their activities.

This study conducted therapeutic music drama for multicultural children, revealing that therapeutic music drama had a positiv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ects on their self-expression and sociality. This means that therapeutic music drama conducted as a group serve as an effective treatment mediator and psychological support method that helps multicultural children express themselves as they are, and promotes them to acquire skills to interact with peers and use them appropriately. In response, this study shows that music therapy using therapeutic

music drama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elf-expression and sociality of multicultural children, suggesting that it can be an effective arbitration measure.

부 록

<부록 1> 자기표현 척도

<부록 2> 사회기술 척도

<부록 3> '꽤만의 여행' 악보

<부록 1> 자기표현 척도

번호	내용	5	4	3	2	1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는다.					
2	대화의 마지막에 가서야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 한다.					
3	대화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하다.					
4	사과를 많이 한다.					
5	예의가 바르지 못하다.					
6	자신의 의사와는 다른 부득이한 이유를 내세워 변명한다.					
7	잘 아는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8	잘 아는 사이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9	잘 아는 사이에서는 자신의 입장만 고려한다.					
10	중얼거리는 것은 아니나 상대가 알아듣기 어려울 만큼 약하게 말한다.					
11	단호하게 말하지 못한다.					
12	말이 입안에서 중얼거린다.					
13	억양이 어색하다.					
14	‘예’, ‘음’ 등 말이 중간에 끊어진다.					
15	말하기 전에 주저한다.					
16	말하기 전이나 말하는 도중에 서두른다.					
17	말할 때 상대를 바로 보지 못한다.					
18	웃거나 찡그리는 듯 얼굴표정이 진지하지 못하다.					
19	손을 비비거나 말을 굴리는 등 얼굴표정이 진지하지 못하다.					
20	몸이 어딘가 굳어있다.					

<부록 2> 사회기술 척도

번호	내용	0	1	2
		전혀	가끔 씩	자주
1	친구와 의견충돌 시 잘 참는다.			
2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3	규칙이 공평하지 못하면 적절하게 이의를 제기한다.			
4	의견일치를 위해 자신의 주장을 양보한다.			
5	친구의 강요에 적절하게 행동한다.			
6	적당한 때에 자신의 좋은 점을 이야기한다.			
7	활동에 친구가 참여하도록 권유한다.			
8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한다.			
9	정해진 시간 내에 학습과제를 마친다.			
10	친구를 쉽게 사귀다.			
11	친구가 놀릴 때 적절하게 대응한다,			
12	어른과의 의견 충돌 시 잘 참는다.			
13	다른 사람의 비판을 잘 받아들인다.			
14	친구와의 대화를 잘 이끌어 간다.			
15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적절하게 시간을 활용한다.			
16	숙제를 잘한다.			
17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여길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18	집단 활동 시 친구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19	친구를 칭찬할 줄 안다.			
20	교사의 지시를 따른다.			
21	학습 자료나 비품을 제자리에 정리한다.			
22	축구 없이도 친구와 협력한다.			
23	학급 활동 시 자발적으로 친구를 도와준다.			
24	진행 중인 활동이나 집단에 스스로 참여한다.			
25	친구가 밀거나 때릴 때 적절하게 대응한다.			
26	학급활동을 하는 동안 친구의 방해에도 자신의 일을 한다.			
27	스스로 책상을 깨끗하게 정돈한다.			
28	교사의 말에 주목한다.			
29	활동이 바뀌어도 쉽게 적응한다.			
30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부록 3> '팩맨의 여행' 악보

Score

음악극

팩맨의 여행

김혜영, 한사랑

자신의 한 쪽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팩맨은 한쪽을 찾으리 여행을 떠났어요.

Vibra tone

Instrument

Song

Piano

5 Choir chime

C B A G C B A G

어 디 로 갔 을 까 나 의 한 쪽 은 어 디 로 갔 을 까 나 의 한 쪽 은

The musical score is presented in four systems. The first system includes an Instrument part with a single note and a 'Vibra tone' effect, a Song part with a whole rest, and a Piano part with a melodic line and accompaniment. The second system features a 'Choir chime' part with notes C, B, A, G, C, B, A, G, a Song part with lyrics, and a Piano part with accompaniment. The score is in 4/4 time.

팍맨의 여행

9

F G E C

9 친구를 찾으러 내가 간다 네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팍맨은 한쪽을 찾으러 아침이 되자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죠
 13 여행을 떠났어요 Wood block "하.. 덥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13 "하.. 덥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어떤날은 비가 내렸어요 추운겨울이 시작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18 Rain stick Cabasa "비는 언제 그칠까?" "으 추워 잠바는 어디없나"

18 "비는 언제 그칠까?" "으 추워 잠바는 어디없나"

팩맨의 여행

그러던 어느날! 친구들을 만났어요
팩맨은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22 Finger cymbal

"안녕, 나는 팬맨이라고 해 넌 이름이 뭐야?"

26 Finger cymbal

"나는 꽃이야, 나는 애벌레야"
"친구들 안녕 만나서 반가워"

"너희들 혹시 나랑 달리기 시합하지 않을래?
준비, 땅!"

기분이 좋아진 팩맨은 다시 한쪽을 찾으러 떠났어요
30 그러나 금세 위기가 찾아왔죠

Paddle drum

팩맨의 여행

높은 파도를 지나고, 뾰족뾰족한 정글을 지나
팩맨은 계속해서 친구를 찾으러 떠났어요

34

Drum

34

34

힘든 여정을 지나 온 팩맨은 마침내 조각을 찾았어요!

38

만세!

38

38

42 Maracas

42

42

팍맨의 여행

46

46

만 났 다 만 났 다 나 의 친구 를 드 디 어 만 났 다 나 의 친구 를

46

50

Maracas

그런데 알고보니 자신의 한쪽이 아니었어요
실망한 팍맨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50

드 디 어 찾 았 다 기 분 좋 아 요

50

54

54

어 디 에 갔 을 까 나 의 친구 는 어 디 에 갔 을 까 나 의 친구 는

54

팍맨의 여행

그런 어느 날!

58

Rain stick Vibraslap

58

허 리 가 아 프 다 친 구 야 어 뒀 니

58

62

조각을 만났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조각을 맞춰보니 Handle castanets

딱 맞는다

62

62

66

66

드 디 어 만 난 내 친 구 야 이젠 떨 어 지 지 말_아요

66

팍맨의 여행

70 그런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답답했죠

Musical score for measures 70-73. It consists of three staves: a percussion staff with four measures of rests, a vocal staff with four measures of rests, and a piano accompaniment staff.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rhythmic pattern of eighth notes in the right hand and quarter notes in the left hand, with some chords in the right hand.

74 팍맨은 잠시 멈춰 곰곰이 생각한 후 다시, 한쪽을 내려놓고 떠났어요

Musical score for measures 74-77. It consists of three staves. The percussion staff has rests for measures 74-76 and a 'Windchime' effect in measure 77. The vocal staff has rests for all four measures.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sustained chord in the left hand and a single note in the right hand in measure 74, followed by rests for the remaining measures.

78

Musical score for measures 78-81. It consists of three staves. The percussion staff has rests for all four measures. The vocal staff has rests for all four measures.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melodic line in the right hand and a bass line in the left hand, with a '8va' marking above the right hand in measure 78.

픽맨의 여행

82 Choir chime

C B A G C B A G

어 디 로 갔 을 까 나 의 한 쪽 은 어 디 로 갔 을 까 나 의 한 쪽 은

86

Windchime

친 구 를 찾 으 러 내 가 간 다 네 어 디 로 갔 을 까 나 의 한 쪽 은